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비에 드 메스트르 - 내 방 여행하는 법 :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알찬 여행을 위하여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어느 출판사 편집자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봤는데, 1)제목 2)표지에 그려진 의자에서 흥미를 느낌. 집 밖을 나서며 시작하는 것이 여행인데, 일단 앉아서 시작하는 모양새(!)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p>p.15 내 방 여행의 좋은 점. 무엇보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 여행의 미덕으로 꼽고 싶다.</p> <p>p.22 <의자 中> 나는 내 방을 여행하면서 곧바로 가는 일이 거의 없다. 탁자에서 시작해 방 한 구석에 걸린 그림 쪽으로 갔다가 에둘러 문 쪽으로 간다. 거기서 다시 탁자로 돌아올 요량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의자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다. 의자란 얼마나 훌륭한 가구인가. 사유하는 인류에게 이보다 유용한 물건은 없으리라.</p> <p>p.25 <침대 中> 의자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방 안쪽에 침대가 놓여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좋다. (...) 침대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본다. 자식을 낳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가 산고마져 잇는 자리가 아니던가. 인간이 때로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이나 비극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던가. 꽃으로 장식된 요람에서 사랑의 옥좌가 되고 끝내 우리의 무덤 자리가 되는 것이다.</p> <p>p.31 <형이상학 中> 책을 읽다가 갑자기 흥미로운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계적으로 글자와 문장을 따라갈 뿐, 이미 책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있다.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방금 읽은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 채 책장만 넘긴다.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짝인 동물성에게 책을 읽으라고 명령은 해 놓은 채, 정작 자신은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타자는 영혼이 더는 귀 기울이지 않는 책읽기를 수행하게 되는 것</p> <p>p.182 <연금 해제> 오늘은 내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내게 나의 자유를 돌려주는 날이다. 그들이 정말 내게서 그것을 빼앗기나 했다면 말이다. (...)그들은 내게 어떤 곳도 가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그들은 내게 이 우주 전체를 남겨 놓았다. 오늘 나는 자유다. 아니 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간다. 일상의 멍에가 다시 나를 짓누를 것이다.</p>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p>한 곳에 가만히 앉아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가 하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도 제자리일 수 있다. 내가 최근 5년간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은, 코로나로 병원에 격리되었던 5일 간이었다.</p> <p><i>*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1763년생으로, 프랑스 혁명을 겪었다. 1790년 어떤 장교와 결투를 벌였고, 재판 끝에 42일간의 가택연금형을 받았다. 방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내 방 여행하는 법'을 썼고, '한 곳에 갇혀 있어도 여행하듯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점이 이후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르헤스, 수전 손택,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영감을 주었다.</i></p>